

#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 고찰

- 1960년대 독서 대중의 세계 인식과 연결하여 -

우정덕\*

## || 차례 ||

1. 대중독자의 등장과 기행문의 세계관
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세계관
3.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의 의사제국주의
4. 결론

### 【국문초록】

196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상업적 대중문화가 부흥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중문화를 상품으로써 소비하던 새로운 문화 담지층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대중이다. 근대의 대중문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적 부르주아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경향성을 띠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람시 등은 대중문학이 기존의 권위에 복종하는 측면을 지니는 동시에 이와 갈등을 빚는 저항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대중문학이 반드시 대중에 대한 억압적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1960년대에 들어 출판의 기업화·거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베스트셀러가 속출했다. 이 중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당시 대중에게 큰 인기를 누린 기행문이다. 기행문은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글이며, 역으로 세계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글이기도 하다.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은 1960년대 대중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은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을 바탕으로 후진국의 열등감을 드러낸다. 이 책에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위계적 질서에 따라 구성되

---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어 있으며, 인종적 측면에서는 피부색의 밝은 정도에 따라 위계가 형성되어 있다. 김찬삼의 이러한 세계관은 당시 대중 독자가 이 기행문에 대해 큰 호응을 보여주었던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김찬삼은 이 책에서 백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교양’면에서는 흑인보다 우위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표상은 의사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주제어 : 베스트셀러, 1960, 김찬삼, 기행문, 아메리카나이지이션, 대중문학

## 1. 대중독자의 등장과 기행문의 세계관

1960년대에 들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와 함께 신문, 라디오 등의 매스 미디어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면서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언론의 기업화 현상에 발맞추어 신문 독자 수와 함께 방송 시청취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1961년 전국적으로 80여만부에 불과하던 일간지 발행부수가 1965년에는 140만부로, 1969년에는 약 270만부 정도로 증가했으며 라디오 수신기는 1963년 4월을 기준으로 140만대를 넘어섰다.<sup>1)</sup> 이는 그 이전까지의 문화 활동이 주로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 의해 향유되었던 것과는 달리 대중이 새로운 문화적 세력으로써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의 대중화는 상업화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책적 통제를 받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1951년 휴전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출판 시장은 조금씩 부흥하여 1950년대 후기에 이르면 대형 출판물이 출현하였고 전집류와 문고본의 기획출판도 성행했다. 또 50년대에 대규모 인쇄시설을 갖춘 동아출판사가 벤튼 주조기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출판 인쇄업계 전반에 제작시설 확충

1)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999, 176-178쪽 참조.

사업이 진행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력이 준비되었다. 활자의 개량, 최신 인쇄 도입, 인쇄·제책 기술의 향상은 때마침 불어온 전집류와 문고본의 붐을 뒷받침하여 출판물을 질적으로 현저하게 격상시켰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 5·16이후부터는 출판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힘입어 60년대 중반에는 기업출판 형태가 출현하였다.<sup>2)</sup>

출판 영역에서도 이러한 대중화 현상이 드러났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독서 대중화운동은 각종 독서 장려 운동과 도서관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독서 대중화 운동의 본질은 균질적인 성격을 지닌 국민을 창출하려는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었다.<sup>3)</sup> 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1961년부터 1962년 까지 독서를 하는 계층은 주로 학생과 무직자였고, 이들은 주로 언어와 문학과 정법, 경제, 이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 이 시기에는 신문과 잡지의 독자가 격증했다. 번역서와 일본 베스트셀러, 이광수 전집, 아동 전집류, 수필류의 출판이 증가했고 출판이 상업화되면서 대량으로 팔리는 책인 베스트셀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4)</sup>

대중문학이 상품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구매력이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당대의 소부르주아나 지식인 계층, 곧 중간층의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문학의 주인공은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 곧 이미 기득권층화한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다른 상품처럼 대중문학도 당대 소비자인 독자의 관심사와 취향을 효과적으로

2) 이영희, 『한국의 베스트셀러 유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32~35쪽 참조.

3) 윤금선, 『해방 이후의 독서 대중화 운동』, 『국어교육연구』 제17집, 2006. 6, 333~380쪽 참조.

4)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7.6, 271~294쪽.

작품 창작에 반영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상업적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작품의 창작과정에서는 소비자인 독자와 관련이 깊은 당대 사회의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대중문학의 주인공은 대체로 보수주의자로서 전통 옹호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초월적 주인공을 등장시켜 악을 징계하고 선을 포상하려는 과정을 통해 당대의 중간층의 윤리를 대변함으로써 상품성을 확보하려는 상업적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5)</sup>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의 『대중문학론』에서 대중문학이 보수적이며 체제 순응적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대중 해방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헤게모니를 특정 세력의 지배가 성취된 상태가 아니라 두 세력의 갈등의 장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조흠은 「1960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시민사회로서의 영화」라는 글에서 그람시의 헤게모니적 이론을 이용해 60년대 연애·오락 문화에서 민주적 원칙이 축적되어 70, 80년대에 정치적 실천으로 폭발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sup>6)</sup> 그람시에 따르면 대중문학은 단순히 지배적인 가치에 종사할 뿐 아니라 그것의 균열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신문이 상업화하고 대중화하는 가운데 신문에 실린 세계일주 기사와 기행문, 세계 일주 관련 연속 기획 등이 인기를 끌었다. 《동아일보》에는 1961년 7월 2일부터 당해 12월 3일까지 23일에 걸쳐 <사진으로 보는 세계일주>라는 연속기획물이 실렸고,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에 김동성(金東成, 千里駒)의 <見聞記 世界一周旅行에서>가 1960년 7월 6일부터 당해 10월 12일에 걸쳐 총 62회 연재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텍스트의

5) 임성래, 「대중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1995, 17~42쪽.

6) 조흠, 「1960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시민사회로서의 영화」, 영상예술연구, Vol.13, 2008 참조.

범람은 당시 대중들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반증한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거꾸로 ‘세계 안에서의 자신(조국)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기도 할 것이다. 기행문은 언제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글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조선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세계’ 속으로 편입되었다. 근대 전환기 이후의 한반도는 비로소 근대적 세계인식에 눈을 떴으며, 근대성을 기준으로 세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기행문으로는 김기수의 『일동기유』(日東記遊), 이현영의 『일사집략』(日槎集略) 등이 있다. 이 시기의 기행문은 주로 공인들이나 계몽 지식인들이 그 저자였기 때문에, 이 시기 기행문에서는 소수 엘리트 계층이었던 이들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sup>7)</sup> 1910년대에는 최남선의 『평양행(平壤行)』과 이광수의 『남유잡감(南遊雜感)』, 『고향의 길』 등이 창작되었고, 기행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들에게 여행은 문명화된 서구를 접하고 배우는 교육의 하나였고 서구는 ‘모방하고 싶은’ 타자로 드러났다. 1920년대가 되면서 초점이 계몽과 주체에서 민족과 국토에 두는 기행문이 등장했다. 이때는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白頭山觀參記)』와 이광수의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 등 국토 순례 기행문이 많았는데, 이는 국토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민족을 상상하려는 시도였다.<sup>8)</sup> 일제 말기에는 정치적 변동으로 대동아공영권 등 일제의 논리를 바탕으로 둔 전선기행이 나타나기도 했다.<sup>9)</sup> 이

7) 이승원, 「근대전환기 기행문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화 연구」, 인천대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근대 계몽기 기행문을 다룬 다른 논문으로는 김현주, 「근대초기 기행문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1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와 우미영의 「시각장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 공간」, 『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등을 참조하였다.

8) 이동원, 「기행문학연구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3.

9) 한민주, 「일제 말기 전선 기행문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339~366쪽.

기행문들은 근대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타내며 이와 함께 세계에서 조선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행문들이 주로 엘리트 계층의 세계관을 드러내었다면, 1960년대에 신문 등을 통해 등장한 기행문들은 이 신문의 구매자이자 독자층이었던 대중의 세계관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찬삼<sup>10)</sup>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sup>11)</sup>는 《동아일보》에 1961년 6월 28일부터 1961년 9월 23일까지 총 58회 연재되었고 여행 기간은 1958년 9월부터 1961년 6월까지였다. 그는 이 연재분을 모아 집문당에서 책으로 발간하였는데, 1962년 1월 10일 초판이 발행된 지 보름 만에 3쇄를 찍고, 10월 15일까지 8판이 발행되는 등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그의 첫 번째 세계여행을 기록한 책이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세계여행을 통해 많은 여행기를 냈다.<sup>12)</sup>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의 인기는 이 책의 오

10) 1926년 6월 5일 황해도 신천 출생 2003년 7월 2일 사망. 부친은 대법관 김세완(1894~1973)

1950년 5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학과 졸업. 1959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대학원 지리학과 1년 수료. 1950년 2월~1953년 3월 숙명여자고등학교 지리 교사. 1953년 3월~1959년 8월 인천고등학교 지리 교사. 1961년 9월~1963년 2월 경희대학교 문리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 1965년 3월~1982년 2월 세종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973년 4월 학교법인 동산육영회 이사. 1984년 3월~1992년 2월 경희대학교 문리과학대학 지리학과 및 경영대학원 강사. 1990년 9월~1992년 2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강사. 1991년 1월 한국 관광지리학회 고문. 2001년 인천 영산도에 '세계여행문화원' 설립.

11) 이 글에서는 직접 인용 시 모두 김찬삼,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집문당, 1963.5.25. (초판 10쇄)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인용 시에는 쪽수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12) 1958년 9월~1961년 7월 제1차 세계여행(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 지리적 현지 조사) 1964년 1월~1964년 8월 제2차 세계여행(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현지 조사) 1969년 12월~1970년 12월 제3차 세계여행(동남아, 남태평양 도서지역) 1973년 11월~1974년 3월 제4차 세계여행(아마존 강 지역 현지조사) 1975년 12월~1976년 3월 제5차 세계여행(서남아, 동부 아프리카), 1976년 7월~1978년 9월 제6차

락성과 자극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의 인기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본고에서는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 보여주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 당대 독자층의 욕망의 결정적인 측면을 충족시켜주었을 것으로 보고 이 책에서 드러난 세계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책은 과거의 사회적이고 공공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상업화된 신문을 읽었던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팔린 첫 번째 기행문이었다. 이는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의 박약한 ‘문학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문화 담지층인 대중의 세계관과 호응하는 기행문이었다는 점에서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 이 책의 오락성과 자극성은 역설적으로 당대 대중의 세계관과 욕망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베스트셀러 유형 연구』와 『베스트셀러의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1962)를 부분적으로 언급했을 뿐이다.<sup>13)</sup>

---

세계여행(북극권 도시 현지 조사) 1977년 12월~1978년 3월 제7차 세계여행(갈라파고스 제도 현지조사) 1982년 7월~1983년 1월 제8차 세계여행(중남미 카르브 도시 현지조사) 1983년 12월~1984년 2월 제9차 세계여행(남아시아 현지조사) 1984년 7월~1984년 9월 제10차 세계여행(동남아 현지조사) 1986년 12월~1987년 3월 제11차 세계여행(북부 아프리카 현지조사) 1987년 12월~1988년 2월 제12차 세계여행(북중미 현지조사) 1989년 6월~1989년 9월 제13차 세계여행(남부 아프리카 현지조사) 1989년 12월~1990년 2월 제14차 세계여행(남부 아프리카 현지조사) 1990년 7월~1990년 8월 제15차 세계여행(동구권 현지조사) 1991년 1월~1991년 2월 제16차 세계여행(인도 현지조사) 1991년 6월~1991년 8월 제17차 세계여행(동구권 현지조사) 1992년 3월~1993년 3월 제18차 세계여행 ‘해를 따라 서쪽으로’를 주제로 아시아·유럽, 자동차로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유럽 답사. 1995년 9월 6일~29일 제19차 세계여행(러시아) 1996년 11월~1997년 2월 제20차 세계여행(동남아시아)

저서에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어문각, 1962.1, 『끝없는 여로』I·II, 어문각, 1965.5, 『세계일주기』, 삼중당, 1972.4, 『세계의 나그네』, 삼중당, 1972.4, 『金燦三의 世界旅行』 전 8권, 삼중당, 1975.9, 『황허의 물은 천상에서 흐르고』, 디자인 하우스, 1998, 『실크로드를 건너 히말라야로』, 디자인하우스, 1998.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연구자들의 시야 밖에 존재했던 텍스트인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가 당대 대중의 세계관과 적극적으로 호응한 텍스트였다는 전제 하에, 이 텍스트에 드러난 세계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 분석에서 드러난 세계관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1960년대 대중의 그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世界一周無錢旅行記』와 이를 수용했던 독서 대중과의 호응관계를 내용 분석을 통해 드러냈을 뿐 실증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고는 단행본을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연재 당시 신문 연재분인<世界一周無錢旅行記>의 내용과 분량, 편집의 차이에서 드러난 의미까지 언급하지는 못했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대국가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자본주의와 대중문화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대중의 세계관을 밝히는 초석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미비점들을 보충하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 2.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세계관

이태준에 따르면 기행문은 “여행하며 쓴 일기, 여행기이나, 자연이든 인사(人事)든, 낯선 풍정(風情)에서 얻은 감상을 쓰는 것”이며, 이러한 기행문에서는 노정이 드러나야 한다.<sup>13)</sup> 그러나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기행문의 노정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는 여행에서 직접 경험보다 여행한 지역에 대한 객관

13) 이임자, 『베스트셀러의 要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2. 이영희, 앞의 글.

14) 이태준, 『문장강화』, 창비, 2008 참조.



적 지리 정보나, 영화 등에서 재현된 모습을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의 서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리적 지식과 들은 이야기 그리고 경험(감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는 간접 경험인 지리적 지식과 들은 이야기가 전체 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직접 체험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고 서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직접 체험을 미국의 영화나 서구의 예술작품에 비유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화나 서구의 예술작품을 통해 형성된 독자들의 외국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시각 안에서 각 지역의 비교적 실제적인 특징을 나타내 주는 것은 객관적인 지리적 정보와 랜드 마크 등이다. 그러나 이것들도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경험할 법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 마크인金門교를 묘사하는 데 그 길이와,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살자의 심경을 제시한다. 이 내용들은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며, 金門교를 본 김찬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내가 이 「알래스카」에 오기 몇 해 전에 본 『글라스 마운틴(氷山)』이란 영화에서 느꼈던 감흥이 되살아났다. 실제 이 빙산을 보는 기쁨! (32-33)

이름 높은 金門교(金門橋)는 길이가 三,〇〇〇 「미터」로 자살자가 많아서 형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피크닉」하는 사람처럼 차리고 자살자를 붙들기 위하여 그것만을 주의해 보는 전문적인 형사라 한다. 이곳은 전 미국의 자살자의 장소로서는 가장 매혹적이며 이상적인 곳이라 한다. 해면(海面)과의 높이가 七三 「미터」이니 백 「퍼센트」로 죽는다. 거의 매일 해가 서쪽에 질 때면 태평양에서 안개가 고양이 걸음처럼 기어든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고 선녀가 오는 듯한 신비감(神秘感)에 사로잡혀 만족스럽게 죽는다고 한다.(57)

사실상 김찬삼은 객관적 서술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의 글에서는 기행문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날짜가 많은 부분 빠져 있다. 그는 알래스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알래스카의 혼』이란 영화를 본 이는 『알래스카』의 풍토(風土)를 『스크린』에서나마 자아낼 수 있었겠지만, 정말 사내를 부르는 나라다.”(37)라고 이야기한다. 『알래스카의 혼』은 ‘North to Alaska’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1960년에 제작된 영화로 김찬삼이 알래스카를 여행하던 시기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김찬삼은 당시의 여행 경험을 직접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독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구성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1960년대에 이미 영화와 같은 매체나 교양 담론을 통해 형성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풍경’을 재현하고 강화하는 텍스트이다.

1960년대를 전후로 한국인(=남한인)에게 ‘세계’는 곧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임과 동시에, 미국이 한국의 사회적·문화적 헤게모니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미국과 서구가 새로운 문명의 표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1956년 조선일보에 실린 <세계를 一週하고>라는 기사에서는 세계를 일주한다는 제목 하에 시카고, 미시간, 로키, 일리노이, 제네바, 런던만을 언급했다.<sup>15)</sup>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가 연재되기 직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見聞記 世界一周旅行에서>에서도 세계여행이라는 제목과 달리 미국 외의 다른 나라를 소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의 인기의 요인 중 하나는 높은 관심을 받았던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를 여행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15) 崔允直, <세계를 一週하고>, <조선일보>, 1956.11.6, 석간 4면.

한편으로는 냉전 체제 하에서 ‘우방국’의 영역을 체험기를 통해 독자에게 확실히 해준 것이기도 하였다. 그 여행 날짜와 경로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텍스트에서 날짜가 분명히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표기하지 않았다.

아메리카 대륙 : 알래스카(1959.8.7)-알래스카 쥬노-알래스카 콜드바-페어뱅크-놈-페어뱅크-베텔스-포인트베로우-시애틀-샌프란시스코-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금문교-로스 엔젤로스-요시미테 국립공원-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세코야 국립공원-오하이오 주 베이커스빌-로스 엔젤로스-캘리포니아-로스 엔젤로스-산타모니카-캘리포니아-네바다-라스베가스-후버 댐-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와이오밍 주 옐로우 스톤 파크-시애틀-피닉스-뉴멕시코 엘 파소-아칸사스 주-미시시피 강변의 리틀 락크-루이지애나 바튼루 주-뉴올리언스-플로리다 주 마이애미(1960.3.6)-멕시코 만 카프리 해안-마이애미-조지아 주-노스캐롤라이나 라레이히(1960.3.12)-버지니아 주 요크타운-리치몬드(1960.3.16)-플린스톤 -뉴욕 필라델피아-워싱턴(1960.4.12)-뉴욕-빈민굴 바우리-뉴런던-보스톤(1960.4.18)-포틀랜드-베닝톤-로체스터의 나이아가라 폭포-피츠버그의 클레브랜드-오하이오 주 컬럼버스-켄터키-인디애나 주-시카고-미네아폴리스-아이오나 사우스 다고마 네브라스카-콜로라도 주 덴버(5월)-네바다 사막-로스엔젤로스

중미 : 멕시코 노랄레스-멕시코 멕시코 시티-과테말라-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온두라스 테구시갈파(1960.8.12)-나카라과(1960.7.15)-코스타리카-파나마(1960.7.2)

남미 : 콜롬비아(1960.7.16)-콜롬비아 보코타(1960.8.1)-에쿠아도르-페루-페루 야야쿠초-페루 쿠스코-페루 티티카카 호수-페루 데사파데로-볼리비아-볼리비아 라파즈-칠리 콘셉션-칠리 페르토 몬트-칠리 폰타 아레나스(1960년 9월 중순)-아르헨티나 이로 카제고-우루과이 몬테비데오-우루과이 쌀토-아르헨티나 콘콜디아-아르헨티나 코리엔테스-파라과이 아순

손-브라질 이과수 폭포-브라질 상 파울로-브라질 브라질리아-브라질 산 토스(1960.11.28)

아프리카 : 남아연방 케이프타운-남아연방 더반-남아연방-베추니아랜드 마페킹- 남 로데시아 북 로데시아 리빙스톤 박물관-모잠비크-니아사 랜드-니아사랜드 치포카-탱가니아-탱가니아 알루샤- 탕가니아 마랑구- 탕가니아 킬리만자로-케냐 -우간다 인테베-우간다 나일 강변-수단 나체 족 마을-이집트 싸랄-이집트 카루름-이집트 아스완 하이 댐-아스완 빈민 굴-이집트 룩소-이집트 아몬 신전-이집트 카이로(1961.2.8)-이집트 카이로 아잘 사원-이집트 카이로 박물관-기자의 피라미드-카이로

중동 : 요르단 예루살렘(1961.2.8)-시리아 다마스카스-시리아 아레포-레바논- 터키 앙카라

유럽 : 그리스-그리스 아테네-이탈리아 브리디짜(1961.3.1)-이탈리아 나폴리-이탈리아 폼페이-이탈리아 로마-이탈리아 베니스-이탈리아 바티 칸-산 마리노 공화국-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국립 오페라 극장-스위스 (1961.3.16)-모나코(1961.3.20)-스페인 바르셀로나-스페인 마드리드-포르 투갈-프랑스 파리-룩셈부르크-독일-독일 쾰른독일 브레멘 유스호스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벨기에-영국 런던(1961.4.22)-아일랜드 더블린-노 르웨이 바르겐-노르웨이 오슬로-스웨덴-덴마크

근동 및 극동 : 에덴-인도 봄베이-스리랑카(세일론)-싱가폴-베트남 사 이공-홍콩(1961.6.10)-일본 요코하마(1961.6.16)-한국(1961.6.22)

이 책에서는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시리즈가 연재되기 직전 《동아 일보》에 연재되었던 김동성의 여행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다른 우방국 들이 추가됨으로써 세계를 바라보는 데 더 넓은 시야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도 미국은 분량과 내용의 밀도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 책에서는 미국 중

심의 세계관을 보인다. 사이드는 지리학적 지식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다른 지역에 대한 상상적인 인식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시각은 사이드가 언급했던 ‘상상의 지리’를 보여주며, 그 상상의 지리는 공산권의 나라들이 소거되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구성된 것이었다.<sup>16)</sup>

지리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지리교사로 재직한 경험도 있는 저자 김찬삼은 여행을 통해 ‘세계의 지리를 알고 한국의 지리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지리’는 지정학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위계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김찬삼이 이야기하는 ‘지리 공부’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이는 “어느 나라의 인구가 얼마고, 산맥은 어떻게…하는 지리적 지식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아프리카』가 역사의 각광을 받게 되는 지리적 바탕은 무엇이고 그 바탕을 받고 선 대륙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sup>17)</sup>라는 내용의 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그가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사이드의 ‘상상의 지리’이며 ‘풍경’<sup>18)</sup>의 세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한 풍속(風俗) 사진이 있었다. 三〇년 전의 하잘것없는 한국 시가지와 족두리를 한 한국 시골 색시였다. 현대적인 한국이 아니고 원시적인 생활상의 소개였다.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16)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106쪽 참조.

17) <大學의異色講座(完) 앞을 내다보는 地理 =世界無錢旅行한 擔當講師가異彩=原理가아니라 示唆의內容>, 《조선일보》, 1962.10.03, 6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부분은 고쳐 적었다. 이후에도 직접인용 부분은 맞춤법에 어긋날 경우 수정하겠다.

18) 근대에 들어 원근법의 성립 이후 세계는 균질적인 공간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 풍경이란 이러한 시각 하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중심으로 바라보이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때 대상은 타자의 시각에 의해 파악되게 된다 것이다. 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7, 80-86쪽 참조.

二차대전 전 일본이 소개한 한국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했다. 이들 북극 사람에게 뒤떨어진 **한국의 지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답사(踏査)하러 다니는 것이 정말 귀중한 지식같이 느껴져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허위를 배워서야 될 것인가 하는 분개심에서였다. 서로 똑바로 보고 소개해야 할 게 아닌가!<sup>19)</sup>(44, 강조는 인용자)

그는 ‘백인들’로 표상되는 미국의 자유와 합리, 물질적 번영을 높이 평가한다. 일례로 김찬삼은 미국 독립 때 졌다고 하는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을 바라보며 감격해 “You should remain the liberty spirit”(93)이라고 중얼거린다. 또 미국인의 시간을 꼭 엄수하는 습관, 근로정신, 법치국가다운 면 등을 높이 평가한다.<sup>20)</sup> 미국은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의 자유 우방 제국”(3) 중 가장 중요한 국가이며 미국이 표상하는 자유주의는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였다. 한편 김찬삼이 ‘미국인’이라 호명한 인물 중 대부분은 백인이었다. 그 외의 인물은 ‘흑인’이나 ‘노인’, ‘인디언’, ‘토인’ 등으로 호명된다. 김찬삼에게 세계가 미국으로 표상되었다면, 미국인은 백인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김찬삼은 백인은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합리적인 반면 물질에 치중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점에서 영

19) 김찬삼,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집문당, 1963, 44쪽. 이후 인용 시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

20) “미국 국민성은 시간의 존엄성(尊嚴性)을 믿는 것이 특징이다. 「로스 앤젤로스」비행장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물건을 차에 올리다가 힘이 모자라 옆에 쉬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 줄 수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공손한 태도로 지금 쉬는 시간이니 이 쉬는 시간이 끝나면 도와주마고 했다. 동양사람 같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게 상정(常情)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이들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약속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데, 「파티」같은 데 초대하는 때는 다르다. 五·六 분 늦어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한편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엔 일을 만든다. 물건을 어루만지고서라도 여덟 시간을 보낸다. 근로정신(勤勞精神)이 투철하다. 한편 국경일은 보통 대의 인공의 二배며, 더구나 「크리스마스」 때엔 四배를 준다. 법치국가다운 데가 엿보인다.”(66~67)

적인 면에서는 동양인(자신)보다는 뒤떨어져 있다. 그가 시카고를 ‘갱의 도시’라고 소개하며 그 이유에 대해 “종교(宗教)의 결핍(缺乏)일까, 물질문명(物質文明)의 부산물(副產物)일까”(98)라고 추리하는 데에서 그러한 시각이 엿보인다. 즉 범죄는 근대적 물질문명 때문에 태어난 것이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종교라고 본 것이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백인과 합리성, 물질성, 정신성의 부족이라는 것으로 표상된다.

한편 김찬삼은 중·남미의 나라들을 다루면서 미국과의 차이점을 언급한다. 예를 들어 “초라한 멕시코는 미국과는 차가 많이 났다”(106)거나 과테말라를 “반미(反美)의 색채(色滯)가 엿보”(109)이고, 엘살바도르의 철도는 “四分의 三”이 미국의 자본으로 되어 있”(110)으며, 나카라과는 “미국의 세력이 별로 뻗치지 못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김찬삼의 세계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성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관계나 비교를 통해서 표상되었다.

전체적으로 중미와 남미는 미국의 변방으로서 별다른 특색을 지니지 못한다. 중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나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의 일곱 나라가, 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이 소개된다. 김찬삼은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약 두 페이지 정도만 할애하며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민족성이 게으르다는 것 외에는 거의 주목하는 것이 없다. 나머지 나라에 대한 내용도 단편적이고 지역적 특색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자세한 묘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중미와 남미 여행 부분은 그들 나라가 후진적 지역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별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각 나라를 다루는 분량이 짧아졌을 뿐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묘사하거나 개인의 체험을 제시하기보다는 성의 방종이라든지 게으름, 미신, 가난 등 ‘후진성’을 드러내는 데 열중한다. 삽입된 사진이나 짤막한 지리적 지식을 제외하고는 각 나라의

특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이들 중 남미의 나라들은 미국에 비해 후진성을 지닌 지역으로서 통일성을 갖게 된다.

아프리카에 들어서면서 묘사는 다시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다. 이는 아프리카의 미개함과 야만성을 형상화하기 위해서이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후진성’이 아닌 ‘미개함’을 가지고 많은 경우 아직 문명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김찬삼은 “나체족(裸體族)의 생태(生態)”라는 제목으로 수단의 원주민을 소개한다. 김찬삼은 이들을 수단의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에 형질 조각 하나 걸치지 않”고 “성기에 채색하고 있는”(242) 이들 원주민을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에 가깝게 여긴다. 아프리카는 물질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반대 극점에 위치한 오지이며, 정신적 측면에서는 동양의 반대 극점에 위치한 미개한 공간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행한 유럽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문명’과 ‘타락’이 혼재되어 있는 곳으로 드러난다. 이는 나라별로 편차가 크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 덴마크는 근면한 국민성을 지닌 것으로 상정된다. 김찬삼은 룩셈부르크인들의 근면함이 높은 생활수준과 함께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긴다.<sup>21)</sup> 또 노르웨이는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덴마크 국민들은 “한결같이 평화스럽고 행복한 얼굴들”인데 이는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부지런하고 따라서 국민 소득이 크기 때문”(340)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은 빈곤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내세웠다. 근면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이러한 사회적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sup>22)</sup> 그러나 미국과 같은 속성을 가진 지역으로써 긍정적으로

21) “어쨌든 어린이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 찬 듯하며, 모두 행복스러운 표정들이다. 그 까닭은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근로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어느 나라사람 보다도 크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근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 문호(文豪) 『톨스토이』의 말이 이 나라에 와서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었다.”(325)

22)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241~248쪽 참조.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나라들은 미국과 달리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시아에서는 에덴, 인도, 스리랑카<sup>23)</sup>,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일본을 언급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들 나라들의 지역적 특색은 철저히 무시되고 이들의 문화는 선별된 소재만 조명된다. 김찬삼은 인도의 코브라 춤을 묘사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성경의 실낙원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나라를 폭력적이리만큼 철저하게 대상화하려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김찬삼은 한편 식민지 조선을 지배했던 옛 제국 일본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의 선진성은 서양에 대한 흉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당시의 반일 담론은 일본의 재빠른 서구화와 근대화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해방 후 많은 정권이 반일정책의 민족주의적 상징성을 이용하며 반일 기치를 들었다.<sup>24)</sup> 김찬삼의 반일적 태도는 이런 바탕 하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김찬삼의 시각은 강렬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김찬삼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단순한 풍물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기에서 보여주는 ‘풍물’들은 당대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에 알맞게 변형되고 왜곡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책의 분량이다. 김찬삼은 책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247개의 소항목들 중 미국(알래스카 포함)에 95개의 항목을 할애했다.<sup>25)</sup> 이집트는

23) 원 텍스트에서는 ‘세이론’으로 표기됨

24)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97, 41~44쪽 참조.

25) 알래스카는 미국령이었다가 김찬삼이 방문한 해인 1959년에 미국의 속주가 되었다. 본문 중 알래스카 주기(主氣)를 봤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봐서 김찬삼이 알래스카를 방문한 것은 알래스카가 미국의 속주가 된 이후일 것이다. 그러나 김찬삼은 알래스

13개 항목을 차지했을 뿐인데도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을 차지한 나라인 것과 비교해보면, 김찬삼이 주목하고 있는 바가 잘 드러난다. 이런 인식은 표지 그림에서 나타난다. 1962년 초판의 겉표지와 속표지의 지구 그림에서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미 대륙’이었다. 김찬삼의 세계관에는 문명화된 국가 미국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계 안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스스로를 동양의 중심으로 여겼다. 한국에서는 스스로가 아시아가 아닌 태평양에 위치한다는 것이 강조되었고, 자국을 서구(미국과 서유럽)와 연계하여 공산주의의 침입을 막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후진성’을 극복하려 방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아래에는 한국이 여전히 전형적인 동양적 국가로서의 후진성을 지닌 존재라는 열등감이 내재해 있었다. 김찬삼의 여행기에서 미국이 때로는 정신적으로는 한국보다 더욱 심한 후진성을 지닌 나라로 설정되는 것은 한국의 후진성을 표면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문명의 정수로 표상되는 미국을 상상적으로 이기기 위한 것이다. 동양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서양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된다. 동양을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서양의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sup>26)</sup> 그렇기 때문에 김찬삼이 미국을 부정하는 것은 **옥시덴탈리즘**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세계의 중심인 미국보다 우위에 서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뿌리 깊은 열등감에 기반을 둔 것에서 것이라는 점에서 허위적인 것이며, 결국은 김찬삼이 느끼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

카를 미국과 구분한다, 알래스카를 제외하더라도 66개 항목이 미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26) 이상우,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大東亞)』, 『한국국예술연구』 제27집, 한국국예술학회, 2008. 4, 163~201쪽 참조.

### 3. 『世界一周無錢旅行記』의 의사제국주의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는 민족 혹은 국가 차원에서 지고 있는 열등감을 김찬삼이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 표면적으로나마 치유한다. 김찬삼은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지니는 동시에, 서구적 교양을 지닌 교양인으로서 형상화되어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인종적 위계질서 안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의 황인종으로서, 또한 백인과 같은 교양과 백인을 뛰어넘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서 형상화된다.

이 책에서 한국인은 자연적이고 종교적이며, 긴 역사와 예술을 지닌 민족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한국인은 서로 분열되거나, 일하지 않고 노름으로 시간과 돈을 탕진하는 후진성을 지닌 민족이기도 하다. 그리고 김찬삼은 한국인의 후진적인 모습에 ‘열등감’과 ‘안타까움’, ‘부끄러움’, ‘민망함’을 느낀다. 한국인의 선진적이면서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인의 모습은 박정희 체제에 의해 강조되고 확산된 것이다. 박정희는 한국의 물질적 빈곤을 강조하여 자본주의를 추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정신적인 우위를 주장했던 것이다. 박정희 담론에서 농촌은 후진성의 집약과 상징이면서 근대화의 대상이었다. 농촌은 어떤 면에서 한국의 후진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구적 근대화의 타락을 구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그려진다.<sup>27)</sup> 김찬삼은 농촌을 보는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바라본다.

김찬삼이 한국인 최초로 세계(미국 및 각 대륙을 포함한)를 여행한 것은 세계를 상상적으로 정복하는 것, 혹은 세계에 한국의 힘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이며 민족과 국가를 위한 승

27)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2008. 81-126쪽 참고.

고한 행위로 드러난다. 김찬삼은 미국을 벗어나 중미와 남미를 여행하기 전, 유서를 쓰는데 그가 쓴 유서의 내용은 “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기쁘게 받으련다. 설령 내가 무슨 사고로 죽더라도 설위 말고 운명(運命)이라고 체념(諦念)하고 부모에게 위로하여 줄 것이며, 애들의 교육을 잘 부탁한다”(105)라는 비장한 것이었다. 김찬삼을 배웅했던 친구 역시 김찬삼을 “『한국의 선각자(先覺者)』라고 부르면서 『김(金) 형이 못 다하면 내가 계속 하겠소』”(105)라고 말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 여행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국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한편 저자인 김찬삼은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 유학생이었다. 미국은 1960년대 한국에서 교양의 절대적인 상징이었고 미국 유학생은 최고의 엘리트였다. 당대의 대학문화는 미국 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며, 이는 문화적 상징으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교양’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자신계급으로 등장한 중산층의 문화적 열망을 반영하는 ‘교양’이라는 것은 단지 문화적 충동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의 표시였던 대학 문화/교양을 향한 욕망의 다른 표현에 가깝다.<sup>28)</sup> 천정환에 의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의 힘에 의해 재구조화된 현대가 한국(지배계급)의 문화적 가치지향을 서구세계의 그것과 일치하게 했”으며, 미국 등 서구의 인문학과 문학이 확고한 힘으로 이 시대 한국의 ‘교양’과 문학을 주조했다.<sup>29)</sup> 이에 따라 1960년대에는 대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에게까지 ‘교양주의’가 퍼졌다. 이는 부르주아 뿐 아니라 중간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교양주의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찬삼이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 견문과 감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술한 교양의 표

28) 이선미,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학문화’』, 265-266쪽 참조.

29) 천정환, 『처세, 교양, 실존 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화사 연구』 40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지들-영어 사용, 영화, 클래식 음악, 영시, 그림 등-을 통해 김찬삼이라는 개인은 동경의 대상이었던 ‘교양인’으로 드러난다.<sup>30)</sup>

저자는 여행의 목적을 “한국인으로서 세계 여행사(世界旅行社)에 신기록(新記錄)을 내 보려고”(2)했다는 것, 그리고 세계에 한국의 ‘올바른’ 모습을 알리게 되는 것<sup>31)</sup>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한국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은 몇 번 언급되지만 매우 소략하게만 서술될 뿐이고, 한국인의 몸으로 세계 여행사에 신기록을 내어 보려고 했다는 것 역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세계 속의 한국인’의 모습은 김찬삼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인종적 위계질서 사이에서 표상된다. 김찬삼은 황인종으로써 자신이 세계에서 백인과 흑인의 중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중간적 위치에서 흑인에게는 동정을 느끼는 한편 미개함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백인에게는 존경을 보내는 동시에 성적인 방종과 물질주의적이라는 측면에 비판을 가한다. 이를 통해 황인종인 저자는 백인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형상화되는데 이는 백인과 황인종인 한국인의 위치를 역전시키려는 시도이다.

또한 백인 여성들이 김찬삼에게 일방적인 호의를 비추거나, 백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김찬삼을 돕는 존재로 표상된다는 점에서 점에서도 김찬삼을 흑인보다는 백인과 정신적으로 가까운 인물로 그려진

30) 이는 작품에서 “더구나 놀라운 것은 『알래스카』 연안의 물빛이다. 바다의 시인 『바이런』도 이 북극의 바다를 읊지 못하지 않았을까? 또한 『드뷔시』의 『라 메르』(바다)란 교향시(交響詩)도 정녕 이 『알래스카』의 바다를 노래하지 못한 듯, 시와 음악 이전(以前), 아니 어쩌면 인간(人間) 이전의 자연미(自然美)인지도 모르겠다.”(23)는 식으로 유명한 그림이나 클래식 음악 등을 남용한 묘사가 많은가에 대한 설명도 될 것이다.

31) “차대전 전 일본이 소개한 한국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했다. 이들 북극 사람에게 뒤떨어진 한국의 지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지금 전 세계를 답사(踏査)하러 다니는 것이 정말 귀중한 지식같이 느껴져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허위를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분개심에서였다. 서로 똑바로 보고 소개해야 할 게 아닌가!”(44)

다. 반면 김찬삼이 흑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진에 익숙하지 않은 흑인의 사진을 찍었다가 폭행을 당하는 에피소드가 소개되기도 했다. 김찬삼은 흑인을 대상으로 의사 노릇을 하기도 하고, 수단의 “나체족”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관찰과 계몽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그는 배를 앓는 흑인 추장의 아내에게 영신환(靈神丸)<sup>32)</sup>을 주어 낫게 한다. 이 에피소드가 진짜인지 여부보다는 김찬삼이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을 명백히 아프리카인보다 상위에 놓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알고 누워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부인이었다. 방안은 무슨 냄새인지 쿠키하며 흠바닥에 보자기 같은 기저귀를 깔고 누워 있었다. 알싸한 연기 냄새도 나는 듯하기에 이게 몸에 해로울 테니, 우선 공기(空氣)를 갈자고 하고, 맥을 짚어 보았다. 五十이 넘었을까 한 나이인데, 열이 매우 높았다. 까만 젓가슴을 드러내 놓고 신음(呻吟)하는 것이었다. (…중략…) 아무리 생각해도 딴 생각이 나지 않아 동양의 비약(秘藥)이라고 하면서 영신환을 내놓았다. 공손히 무릎 꿇고 추장이 감사를 했다. (215)

문명과 야만의 위계관계는 인종에 따라 나뉘게 된다. 김찬삼은 ‘민족성’을 인종에 따라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미 다른 인종을 만나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관점을 이들을 접한 후 재확인한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토인들의 종족이 줄어들다는 것은 백인들의 이민(移民)으로 말미암은 생존경쟁(生存競爭)에서 생긴다고 볼 때, 그들의 무구한 민족성-오직 신앙만을 받드는 강렬(強烈)한 성격-이 짓눌리는 것이 서운했다”(48)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선진성과 후진성도 우등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각각 나누어 담지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

32) 한약 소화제

「할렘」(harlem) 흑인촌(黑人村)에 가보면, 미국의 이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허름하게 차리고 지하철차를 타고 一四〇가(家)에 내렸다. 흑인 교회(敎誨)에 갔더니 목사(牧師)가 악수하며 반기었다. 돌아다보니, 모두 새까만 흑인들뿐이며 백인은 물론 없고 황인종(黃人種)이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이상한 나라에 온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애들 노는 모양이 도시 활기가 없었다.

흑인 극장에 들어갔는데, 고린내며 암내가 풍긴다. 흑인들은 예의가 없었다. 신을 앞 의자에 올려놓고 보는가 하면 떠드는 사람도 있었다.(93)

인종적으로 나뉜 세계를 그려내면서도 김찬삼은 종교적 자세에서 세계와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는 “여행에서 느낀 것은 종교나 사상의 힘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인간적(汎人間的)으로 사랑하고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본질(本疾)은 끝내 선(善)하며 사랑으로 융화(融和)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치게 느꼈”(3)다고 말하기도 하고, “서로 모르고 있는 나라끼리 모든 면에서 교류(交流)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이 혼돈(混沌)된 세기(世紀)에서 인간이 지닌 본질적(本質的)인 인간성(人間性)－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통된 인간선(人間善)으로써 결합해 보자는 이념을”(179)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관념에 그칠 뿐이고 인류애의 경험은 자신을 돕는 백인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결국 김찬삼이 나라별·인종적 위계에 따라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제시한 ‘인류애’는 제국주의적인 색채를 띤 것이었다. 이는 김찬삼이 아프리카 로데시아에서 “중앙아프리카 탐험의 선구자(先驅者)”인 리빙스톤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도보로써 이 암흑의 대륙을 탐험하고 개척의 첫길을 열은 그의 공로에 스스로 머리를 수그리는 한편, 더 많이 『아프리카』 지방을 돌아보고야 말겠노라고 무언의 맹서를 하였다”(209)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대암흑왕국(大暗黑王國)인 「아프리카」에 광명을 던지고 세계에 소개한 「리빙스톤」의 반생은 봉사뿐이었다. 그는 선교사(宣教師)로도 이름 높거니와 의술(醫術)까지를 배워서 길 없는 「장글」을 헤치고 개척했으며, 이름 없는 하천(河川)을 따라 「아프리카」의三分의一을 답사했었다. 그 거리는 대서양에서 인도양에까지 이르렀다. 넓은 공백지대의 여러 가지 동식물을 발견함은 물론, 거기 따르는 새로운 인종의 발견과 조사 등 넓은 범위의 탐험이었으며, 박애정신(博愛精)에 입각한 인도적인 순례자였다.(211)

그는 리빙스톤을 미개한 아프리카에 대한 ‘봉사자’로 파악하고, 그의 답사 후 영국 사람이 식민지화한 것을 비판한다. 그러나 개척 탐사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다른 인종을 대상화하여 ‘발견’하고 ‘조사’하는 인물을 그 대상화된 인종에 대한 봉사자로 파악하는 시각은,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보는 백인들에 대한 분개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선진국 국민에 대한 분노는 열등감의 표현이면서 ‘선진국’에 대한 선망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위계질서, 그리고 백인을 중심으로 한 인종 간 위계질서에 도전하는 듯한 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위계적 세계질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사제국주의적인 태도를 바탕에 둔 것이었다.

#### 4. 결론

1960년대는 국민 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이 형성되고 대중문화가 부흥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대중은 최초로 산업화된 대량 상품으로서 책을 소비하게 되었다. 출판 시장이 산



업화되면서, 독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문학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찬삼의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1962년 신문 연재본을 모아 출판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한 권의 책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대상에게 대량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것은 1960년대부터였으며, 이는 독자의 성격과 대상 그리고 구매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60년대부터 독자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대중문학, 그중에서도 베스트셀러는 이들의 욕망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행문은 언제나 당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장르였으며, 이는 역으로 ‘나라는 주체, 혹은 민족(국가)의 위치를 되묻는 작업이기도 했다.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1960년대에 등장한 대중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世界一周無錢旅行記』는 많은 경우 일정의 날짜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당시의 대중들이 이를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시간의 서구에 대한 옥시덴탈리즘과 동양인과 흑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 공존하는 가운데 자극적인 소재를 읽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다. 대중들은 세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질서 지워진 세계로 바라본다. 또한 『世界一周無錢旅行記』에서는 백인과 황인, 흑인이 위계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황인종인 독자들이 그런 이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인공인 김찬삼이 정신적·도덕적인 면에서 백인의 물질주의와 개방적인 성 의식, 그리고 흑인의 무지와 게으름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김찬삼이 서울대학교 출신에 미국 유학생인, 당시로서는 매우 엘리트 계층인 것이 그의 비판적 태도와 어우러져 그를 영웅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작가의 자기 표상은 한국인으로서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미국/백인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의사제국주의의 표현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베스트·셀러」의 條件 =外國의 境遇와 比較하여』, 《조선일보》, 1962.10.16, 조간 8면.
- 『大學의 異色講座(完) 앞을 내다보는 地理 =世界無錢旅行한 擔當講師가 異彩 = 原理가 아니라 示唆의 內容』, 《조선일보》, 1962.10.03, 6면.
- 『世界一周無錢旅行』, 『대학신문』, 1962.2.5, 8면.
- 김 찬삼, 『世界一周無錢旅行記』, 집문당, 1963.5.25.
- 崔允直, <世界를 一週하고>, 《조선일보》, 1956.11.6, 석간 4면.

### 2. 논문

-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1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 우미영, 『시각장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 공간』, 『어문연구』 1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윤금선,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 2007.6.,
- 윤금선, 『해방 이후의 독서 대중화 운동』, 『국어교육연구』 제17집, 2006.6.
- 이동원, 『기행문학연구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상우,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大東亞)』, 『한국극예술연구』 제27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 이선미, 『1950년대 미국유학 담론과 ‘대한문화’-『연회춘추』의 미국관련 담론과 기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6집, 깊은샘, 2009.
- 이승원, 『근대전환기 기행문에 나타난 세계인식의 변화 연구』, 인천대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영희, 『한국의 베스트셀러 유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이임자, 『베스트셀러의 要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2.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97.
- 조흠, 『1960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시민사회로서의 영화』, 『영상예술연구』 Vol.13,

2008.

- 차혜영, 『동아시아 지역표상의 시간·지리학』,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0호, 2009.  
천정환, 『처세, 교양, 실존 1960년대의 ‘자기계발’과 문학문화』, 『민족문학사 연구』 4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한민주, 『일제 말기 전선 기행문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연구』 제 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12.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논문, 2008.

### 3. 단행본

- 강상현,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999.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이태준, 『문장강화』, 창비, 2008.  
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7.  
임성래,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 연구회, 1995.

**Abstract**

A study on Kim, Chan-sam's 『The record of traveling around world without mone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reading public

Woo, Jung-Duck

In 1960's, popular culture and public has formed in South Korea. In early 1960's, Chan-sam Kim's 『The record of traveling around world without money(世界一周無錢旅行記)』 has published and became very popular. This text is not following the general form of travel essay, for did not reveal the actual time and place. It also shows very notional view to understand world. This notional world in this text expresses that orientalism and occidentalism which based on feeling of inferiority as a person of underdeveloped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world in this text is constructed through hierarchical order and America is top of it's order. Kim Chan-sam represents himself whom more superior to black people for hierarchical order of skin color, more superior to white people for his oriental morality. This position making is one of the important reason of success of this text and respond of audience. This tex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shows the popular culture is effected by powerful nationalism in 1960's.

Key-words : bestseller, Kim, Chan-sam, popular literature, travel essay, 1960's, Americanization

우정덕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 (135-082)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경남아파트 410호

전화번호 : 02-553-7041, 010-8365-0046

전자우편 : woojd32@naver.com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